

# 매일 만나

2023. 5.



원주중부교회 큐티집

"QT 매일 만나" 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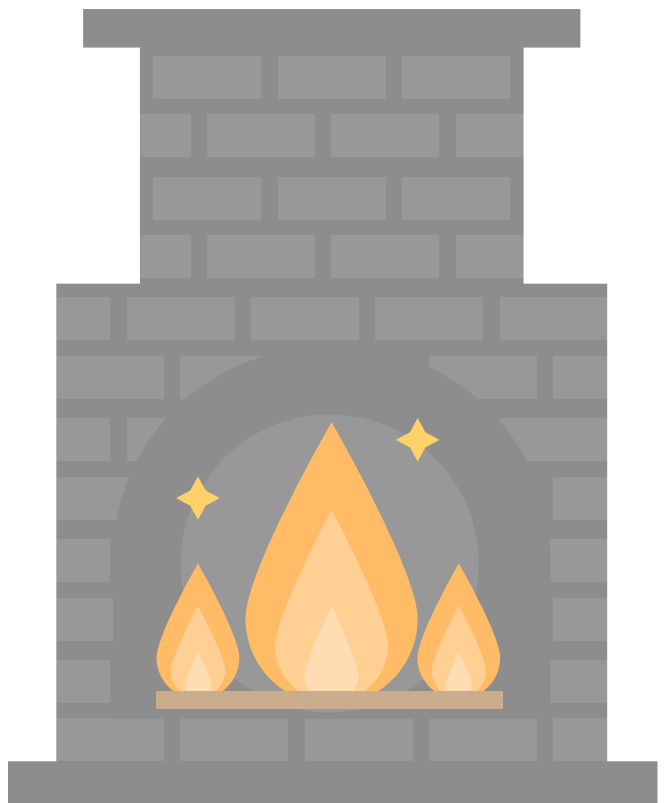
Quiet Time 의 첫글자인 **경건의 시간, 묵상의 시간**입니다.

**매일 만나**는 광야 같은 인생길에 늘 동행하시며,

**날마다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이름처럼 **날마다 하나님과 만나**는 깊은 교제로

**은혜**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 *Holy Bible survey*

# 야고보서

### 1. 저자와 기록 시기

본서의 저자는 자신을 야고보라고 분명하게 밝힌다(1:1). 신약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많이 나오는데 본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총회 회장까지 맡았던 유능한 지도층 인사였다. 그는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전까지 하였으나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 예수님을 형님으로써가 아니라 주님으로 믿고 헌신하다가 헤롯에게 순교 당했다(행 12:2).

본서 전체에 나타나는 명령적인 용법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가장 친근하게 생활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와 유사한 표현법과 내용 등이 본서가 주의 동생 야고보에 의해 기록되었다는 산 증표이다. 그는 주후 62년경 순교했으니 그 시기 직전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한다.

### 2. 배경과 목적

본서의 저자가 예수의 동생 야고보이며, 본서의 수신자가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점은 본서의 배경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준다. 당시 본서의 수신자들은 예수의 메시아성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핍박과 네로의 기독교 박해로 미신들의 사상을 오해하게 되었고 성도들간에 뜨거운 사랑도 자연스럽게 식어지게 되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본서의 수신자들, 곧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은 격려하며 더욱 더 인내하도록 권고하기 위해 본서를 기록하였으며,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힘씀으로서 서로간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뿐 아니라 참된 성도의 자세를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하기 위해 기록하였다.

### 3. 내용과 교훈

우리는 이제 신약성경 중 공동서신(General Epistles)이라고 부르는 부분의 초입에 들어서고 있다. 바울서신처럼 어떤 특정한 교회에 보내진 서신서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것이요 그리고 여러 사도들의 서신서를 묶은 것이기에 공동서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 첫머리를 장식한 서신이 바로 야고보서라고 불리우는 본 서이다. 야고보서는 흔히 '신약의 잠언서'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다. 신앙의 실천, 신앙인의 삶의 지혜가 가득 담겨 있다.

본서는 "행함"(1~2장), "교제"(3~4장), "경고"(5장)를 통해 믿음의 성장, 믿음의 능력을 서로 병행시킴으로써 시련 가운데서의 인내와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서신서이다. 언뜻 보기에는 '이신득의'( ),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강조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본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서는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는 시련과 시험이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그 목적과 근원을 설명해 주며, 그 후에 믿음에 뒤따라야 하는 행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때 믿음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말을 절제하고, 참 지혜와 겸손,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이다

### 4. 구조

야고보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1~2장은 '행함', 3~4장은 '교제', 5장은 '경고'이다. 이것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능력으로 병행시켜 놓을 수 있다. 본서는 시련 가운데서의 인내와 믿음의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서신이므로 언뜻 보기에는 이신 득의( ),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말씀을 강조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상충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본서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행위를 강조함으로써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서는 그리스도인이 당하게 되는 시련과 시험이 믿음의 성숙을 위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함으로써 그 목적과 근원을 설명해 주며, 그 후에 믿음에 뒤따라야 하는 행함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때 믿음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며 말을 절제하고 참 지혜와 겸손, 기도의 생활을 하는 것들이 있다. 이처럼 본서는 신앙의 실천적인 면을 강한 어투와 교훈조로 기록하였으므로 "신약의 잠언" 혹은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한편 본서는 전반부인 1:1~18에 시련과 시험 중에 있는 고난당하는 자들에 대한 문안과 시험의 근본 목적 및 그 종류에 대해 기록하였고, 중반부인 1:19~5:6에서는 믿음에서 비롯되는 성숙한 삶을 강조하였으며, 마지막 5:7~20에서는 믿음으로 고난을 통과한 자가 누릴 영예를 기록하고 있다.

# 01

월요일

##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약1:1-11

새찬송가 420장

- 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흠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 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 8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 9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 10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 11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 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말씀 암송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벧전 4:12)



## 1~11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즉 수리아와 소아시아 등 여러 곳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성도들에게 편지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은 성도에게 닥쳐오는 시험이 다양한 사실을 나타냅니다. 어떤 때는 육체적 질병이, 어떤 때는 실직이나 부도, 파산 등의 물질적 어려움이, 어떤 때는 가족들의 질병과 사고와 죽음이, 어떤 때는 친구의 비방과 배신, 또 어떤 때는 가정의 파탄이나 국가의 경제 공황이나 전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시험을 당할 때에 불평하지 말고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이유는, 모든 상황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부족함이 없는 인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시험을 잘 대처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이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에 잘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지혜는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여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죄와 세상, 사망의 권세에 대한 시험을 이길 지혜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이겨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을 만날 때, 온전히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의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 02

화요일

##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약1:12-18

새찬송가 425장

- 12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 1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 14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 15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 16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 17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 18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 12~18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라

야고보서의 '시험'은 '시련'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시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시험입니다. 잘 통과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그러면 시험의 원인은 그의 욕심 때문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될 때 시험에 떨어 집니다. 사람은 돈과 정욕 때문에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돈 사랑이 나 명예심이나 생의 애착 때문에 물질적 파산이나 남의 비난이나 몸의 질병으로 인해 낙망 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은 죄를 낳고 죄의 결과는 죽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이 죽음은 지 옥 형벌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을 줍니다. 세 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지만, 시험에 지지 말고 잘 참고 이겨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 으십시오. 주님은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우리가 시험을 잘 이기도록 도와십니다. 둘째 로, 시험의 원인은 자신 속에 있는 욕심이기에 물질과 쾌락과 명예에 대한 세속적이고 이 기적인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바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 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좋은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이유, 제 목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아에서 구원하신 것 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천국만 바라며 모든 시험을 이기고 모든 말씀에 순종하 는 거룩과 의와 선과 진실을 행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험에 넘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03

수요일

##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약1:19-27

새찬송가 428장

- 19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 하며 성내기도 더디 하라
- 20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 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 22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 23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 24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 25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 26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 27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말씀 암송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시 62:12)



## 19~27절 경건은 ...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

야고보는 참 경건이 어떤 행위로 나타나야 하는 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으로 섬기는 구제와 봉사이며, 다른 하나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입니다. 참된 경건은 말씀의 순종과 주님을 닮아감. 즉 주님과 교제, 기도로 나타납니다. 그렇기에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입니다.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슨 말이든지 듣기는 속히 하는 것이 좋지만, 말하기는 더디 해야 하고 성내는 것은 더욱 더디 해야 합니다. 말은 실수하기 쉽고 사람의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도우며, 자신을 지켜 이 세상의 음란과 음행의 우상숭배와 죄악된 풍조와 유행에 물들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의 선한 행실은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04

목요일

##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약2:1-13

새찬송가 430장

- 1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 2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 3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 4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 5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시니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 6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 7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 8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 9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 10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 11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 12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 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 13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말씀 암송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약 2:9)



## 1-7절 외모로 취함이 없는 믿음

야고보는 성도들 상호간에 '외모로 취하지 말 것'을 강조한다. 이는 사람의 외적인 지위나 상태에 따라 판단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회당안에서 빈부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강하게 책망한다.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나오는데 이는 '찬란한 옷을 입은 사람'을 뜻한다. 이는 당시 권세 있는 공무원이나 유력한 부자를 가리킨다. 반면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누추한'의 의미다. 가난한 사람의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모습을 말한다. 이것은 서로를 구별하며 판단하는 일이며 악한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와는 정반대가 되는 것이다.

## 8-13절 최고의 법으로서의 이웃 사랑

야고보는 이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고 한 계명을 인용한다. 이 계명을 '최고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웃 사랑의 계명을 '법'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엔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과 상통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와 삶을 보시고 평가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를 용서해주셨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 이웃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 05

금요일

##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약2:14-26

새찬송가 433장

- 14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 15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 16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덮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 17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 18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네게 보이리라 하리라
- 19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 20 아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 21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 22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 23 이에 성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 24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 25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 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씀 암송**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약 2:26)



## 14-20절 행함이 없는 믿음

본 단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신실하심이다. 앞 단락에서 저자는 수신자들이 구원을 향해 나아갈 것과 약속받은 것들을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얻게 될 것을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이러한 격려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확실성과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의 실례를 통해 보다 확고해지게 된다. 저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적으로 확실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의 맹세에 의해 확증되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이러한 확실성을 확고히 믿었기 때문에 극심한 시험까지도 능히 인내함으로써 그 약속된 것을 얻을 수 있었다.

여기서 저자는 앞에서 자신이 다루고자 했던 멜기세덱의 주제로 자연스럽게 넘어간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심으로 하신 약속들 가운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약속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런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 이 약속을 확고히 이루신 것이다. 목회적 단락의 이와 같은 결론은 이제 7장에서 전개될 멜기세덱에 관한 가르침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 21절-26절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되다는 것을 논증하기 위해 구약의 사건을 예로 든다. 먼저 아브라함이 등장한다. 2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쓰인 '의롭다 하심'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그때 비로소 처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이 그의 이 행동을 통해 분명히 드러나고 하나님에 의해 인정되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행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을 가리킨다. 이것은 믿음의 열매로서의 행함이며 이것이 있어야만 참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떤 행함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 06

토요일

## 말에 실수가 없는자라면

약3:1-12

새찬송가 440장

-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 2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 3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 4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 5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 6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 7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 8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 9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 10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도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 11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 12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씀 암송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약 3:8)



## 1-2절 선생이 되지 말라

교회에는 언제나 선생이 필요하다. 복음전파와 함께 우선 요구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 충고를 통해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다. 첫째, 선생이 된다는 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어야 한다. 둘째, 교회에서 모두가 다 선생이 될 수 없음은 자명하다. 또 아무나 가르치는 사람이 되게 해서도 안 된다. 바울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은사로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진술했다. 셋째, 지금의 교회는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자질을 심사하고 준비해야 할 자격을 규정해 놓았다. 이런 제도는 정당하고 본문의 야고보의 충고를 귀담아 들은 결과이다.

## 3-8절 혀는 조절하거나 길들이기 어렵다

혀는 말의 고삐나 재갈보다 작다. 배의 키보다도 훨씬 작다. 그러나 혀를 조절하기는 매우 어렵다. 야고보가 혀, 말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은 다름 아닌 혀를 사용한 자기 자랑 때문이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꾸며내는 것, 큰 것을 자랑하는 것은 혀의 기능이다. 손으로는 한 사람도 죽이기 어렵지만 혀와 말로는 수많은 사람들을 쉽게 죽이고 모독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혀를 조절하여 악한 말을 피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또 다른 자격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 9-12절 입의 이중성

야고보는 입의 이중성을 샘물과 나무의 비유를 들어 설명했다. 수돗물이 오염됐다면 어느 집이나 오염된 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말을 만드는 것은 이런 샘과 같다. 신자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이 나와야 하고 사람들을 향한 선한 말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는 이를 말과 마음의 관계로 적용했다. 이는 가르치는 직분자의 자세이기도 하다.



## 말에 실수를 줄이기 위해 해야 할 노력은 무엇입니까?



# 07

주일

## 위로부터 난 지혜는

약3:13-18

새찬송가 446장

13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14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 말하지 말라

15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16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17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18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말씀 암송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약 3:18)



## 13-16절 세상적인 지혜

야고보는 지혜, 지식을 근거로 선생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을 독자들이 스스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침을 제시한다. 지혜와 지식은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실'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 수다스럽게 말을 많이 하고, 사람들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이 감히 반박할 수 없도록 강하게 말한다고 해서 교회에서도 정말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교회가 인정하는 참된 지혜는 '조용한' 힘이며 '선한 일'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온유한 가운데 지혜의 일들을 그들의 착한 행실로 보이라'고 제안했다. 믿음은 행함과 나타나야 한다는 2장 마지막 부분의 주장이 이곳에 계속 흐르고 있다.

## 17-18절 위로부터 난 지혜

위로부터 났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난 지혜를 말한다. 성령님이 준 은사로서의 지혜, 은사로서의 지식을 말하며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열매들을 의미한다. 야고보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넘치는 자비와 선한 열매들, 편벽이 없음, 거짓이 없음'을 그런 지혜의 열매들로 제시했다. '성결'은 죄가 없음 내지 순수함, 두 마음을 품지 않음을 의미한다. '화평'은 평화로움, 평온함을 뜻한다. '관용'은 친절함, 열린 마음을 뜻하며, '양순'이란 순종함, 순순히 따름을 의미한다. 하늘에서 온 지혜는 '자비, 동정심이 넘치는 것', '선한 열매들이 넘치는 것', '편견과 편파성이 없는 것', '꾸밈, 위장이 없음'으로 나타난다.



나에게 필요한 위에서만 지혜는 무엇인가요?

# 08

월요일

##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약4:1-10

새찬송가 449장

- 1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 2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 3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 4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 5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 6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 7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 8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 9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 10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사리라

**말씀 암송**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약4:3)



### 3절 정욕으로 쓰려고

쾌락에 대한 욕망이 마치 짐승들이 게걸스럽게 먹어 치우는 것과 같음을 나타낸다. 쾌락에 대한 욕망으로, 마치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뭔가를 구할 때 얻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5절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아주 강한 열망을 품다', '전적으로 바라다', '참으로 열망하다'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질투하실 만큼 우리에게 대해 아주 강한 열망을 가지고 계신다.

### 7절 마귀를 대적하라

'대적하라'(헬) 안티스테테)는 부정과거 명령형으로, 즉각적으로 대항하라는 긴급성과 엄중함을 나타낸다.



내 안에 다스려야 할 세상의 욕심(정욕)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 09

화요일

## 입법자와 재판관은 한 분이시니

약4:11-17

새찬송가 452장

11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12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13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14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15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말씀 암송**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약4:17)



## 11절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서로를 비판하는 신자들은 율법을 무시하고, 자신이 율법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사랑을 명령하는 레위기 19:18보다 두 절 앞서 나오는 레위기 19:16은 비방을 금한다. 그러므로 야고보가 다시 한번 '최고의 법'을 언급하는 것일 수 있다.

## 14절 안개

야고보의 책망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반영한다. 예수님께서서는 짧은 생을 생각하지 못하고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일 궁리만 하는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다(눅12:15-17).

## 17절 죄니라

죄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지시하신 것을 행하지 않는 것이기도 하다.



오늘 내가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는 선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기시다.

# 10

수요일

## 부한 자들아 울고 통곡하라

약5:1-6

새찬송가 453장

- 1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 2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 3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 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 4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삯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 5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륙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 6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 1-6절 억압자들을 향한 경고

야고보는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축적하고 사치를 일삼는 자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당시 부자들은 많은 땅을 소유한 지주들로, 자신들의 밭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한 품꾼들에게 정당한 삯을 지불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품꾼들의 우리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면 그들은 큰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4절).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쌓아 온 부가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고 자신들이 하늘의 복을 받았다고 여겼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악한 결코 지워지지 않고 기록될 것이다. 곧 그들에게는 큰 고난이 임하여 울고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 대신 더 믿고 의지했던 재물이 그들을 실족하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이 부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그 부를 도구 삼아 더 많은 이에게 사랑을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쾌락을 위해 부를 허락하시는 경우는 없다. 하나님의 이러한 뜻을 늘 기억하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면(마6:33), 재물에 대한 탐욕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거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지 않을 것이다.



공의의 하나님을 기다리며, 더욱 참고 견뎌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 11

목요일

##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약5:7-12

새찬송가 86장

- 7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 8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 9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 10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 11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옫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 12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 7절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스라엘에서 풍년은 비에 달려 있었다. 비는 가을에 씨를 뿌리기 전에 땅을 부드럽게 해 주고, 봄 추수 전에 농작물에 물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구약에서 나오는 이 이미지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리킨다(신11:14, 렘5:24, 호6:3).

## 8-9절 가까우니라.. 문밖에서 계시니라

신약은 일관되게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말한다(롬13:12, 히10:25). 예수님의 초림(부활)을 통해 '말세'가 시작되었고(3절), 구속사의 다음 사건은 영광 중에 임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따라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밝아 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린다(딤후2:13).

## 12절 맹세

맹세하지 말고 자신의 단순한 말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라는 권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확하게 되풀이한다(마5:33-37). 맹세는 약속한 바를 이행할 것이라는 보증으로서의 서약이나 다짐을 가리킨다.



인내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 가장 칭찬받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 12

금요일

##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약5:13-20

새찬송가 85장

- 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 14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 15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 17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삼년 육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 18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 19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 20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말씀 암송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약5:13)



## 본문설명

야고보는 본문에서 공동체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 각 개인에 대한 교회의 돌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통을 겪고 있거나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을 심방해주고 기도해주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고통과 병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도력을 갖추게 됩니다. 죄 고백은 치유를 도울 수 있습니다.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사람이 전인격적으로 곧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새롭게 되어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공동체는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기도를 통해서 큰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의인이라고 할 때 의인은 하나님과 바른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만약 진리에서 떠난자가 있다면 성도는 상호협력하여 그 영혼을 돌이키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옳은데로 인도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큰 축복과 은혜를 경험합니다.



내가 지금 더욱 부르짖어야 할 제목은 무엇입니까?

# 13

토요일

##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시45:1-17

새찬송가 199장

- 1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 2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은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 3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 4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 5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 6 하나님이며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 7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 8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계의 향기가 있으며 상아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 9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 10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 11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 12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 13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 놓았도다
- 14 수 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 15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 16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 17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말씀 암송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5:17)



## 본문설명

시편 45편은 "사랑의 노래"로서 내용은 왕의 결혼에 대한 축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은 은혜로우며 용사이고 악을 미워하고 정의를 사랑하는 매우 이상적인 왕입니다. 절에서는 이 왕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7절에서는 또 하나님과 왕을 구분합니다. 3절의 영화와 위엄은 성경에서 거의 하나님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17절에서 만민이 영원히 찬송한다는 표현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을 보면 이 말씀은 어떤 왕의 결혼에 대한 시편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이 세우실 궁극적인 왕인 메시아에 대한 시편으로 이해해야 함을 알려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3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번째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입니다. 두번째는 신부인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는 함께 할 미래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는 왕과 함께 할 미래의 아름다움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보고 그가 어떤 사랑을 베풀었는지를 보고 그분만을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 14

주일

##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46:1-11

새찬송가 200장

- 1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 2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 3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 4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하도다
- 5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매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 6 못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매 땅이 녹았도다
- 7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 8 와서 여호와와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 9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심이어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 10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못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 11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로다 (셀라)

말씀 암송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46:7)



## 본문설명

지금 시온은 불가항력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에 있는 시인은 두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시온성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교회의 주인으로 모실 때 교회에 있는 자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이스라엘에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 도피성으로 피하면 아무도 그를 해칠 수 없습니다. (1절) 어떠한 자연재해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3,4절)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5절) 못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려도 만군의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그분은 모든 전쟁을 쉬게 할 수 있는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15

월요일

##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시47:1-9

새찬송가 205장

- 1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 2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 3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 4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 5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심이여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 6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 7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 8 하나님이 뭇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 9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여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말씀 암송**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시편47:1)



## 본문설명

47편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의 모든 민족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는 여호와께 드리는 가장 순전한 찬양의 송가입니다. 이 시는 시 46:10의 주제를 확대시켜 놓은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시는 우주 통치자로서의 여호와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존하신 여호와께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만민과 나라들을 우리 발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다스리며 거룩한 보좌에 앉아계십니다. 우리는 그를 기쁨으로 함성으로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지 계획을 세워봅시다

# 16

화요일

##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시48:1-14

새찬송가 208장

- 1 여호와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 2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함이어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 산이 그러하도다
- 3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 4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음이어
- 5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 6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 7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 8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와는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 9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 10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 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 11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 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 12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 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 보라
- 13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 14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말씀 암송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48:14)



## 본문설명

고라 자손의 시로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와 그의 권세와 은혜를 노래하는 찬양시입니다.  
성전 찬양대의 일원이었던 고라 자손이 예배를 위해 만든 시로 추정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며 백성을 구원하시는 능력있는 위대한 분이심을 찬양하며  
그 백성임을 확신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 17

수요일

##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시49:1-20

새찬송가 211장

- 1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 2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 3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 4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 5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라
- 6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 7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 8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 9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 10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 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 11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 12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함이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 13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 14 그들은 양 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 15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 16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의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 17 그가 죽으매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 18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 19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 20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말씀 암송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시49:15)



## 본문설명

고라자손의 지혜시로 마지막 날이 다가왔을 때에는 세상 재물이 구속과 영생을 줄 수 없음을 밝히며 지혜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모두가 죽고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스올에 갈 것이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신은 하나님께서 영접하실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삶의 허무함과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신본주의적 삶을 살아가도록 교훈을 주며 권면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18

목요일

##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시50:1-23

새찬송가 214장

- 1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 2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 3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 4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 5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 6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셀라)
- 7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 8 나는 네 제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 9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 10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못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 11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 12 내가 가령 주려도 네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 13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 14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네 서원을 갚으며
- 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 16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 17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 18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 19 네 입을 악에게 내어 주고 네 혀로 거짓을 꾸미며
- 20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 21 네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 앞에 낱알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 22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 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 암송**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시50:6)



## 본문설명

저자를 밝히고 있는 101편의 시 중 아삽의 시는 12편이 있습니다.  
다윗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한 아삽은 '거두어 쌓는 자'라는 뜻이며  
레위인으로 다윗 시대 3명의 악사 가운데 한 명이였으며, 성전 찬양단의 책임자였습니다.  
참된 제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의로운 삶과  
은혜에 감사하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외식적,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있지 않은지 점검해봅시다.



# 19

금요일

##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시51:1-19

새찬송가 218장

- 1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 2 나의 죄악을 말갱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 3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 5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 6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 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 9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 10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 11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 12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 13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 14 하나님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 15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 16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 17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 18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 19 그 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 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말씀 암송

하나님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시51:1)



## 본문설명

다윗의 참회시로 밋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을 통해 자신의 죄를 책망받았을 때에 지은 시입니다. 시편의 7편의 참회의 시 중 죄에 대한 슬픔과 철저한 뉘우침이 가장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시이지만 죄악을 씻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하는 다윗의 의지가 견고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돌이키고 있습니까?

# 20

토요일

##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어

시52:1-9

새찬송가 220장

- 1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 2 네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 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 3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셀라)
- 4 간사한 혀여 너는 남을 해치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 5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어 너를 붙잡아 네 장막에서 뽑아 내며 살아 있는 땅에서 네 뿌리를 빼시리로다 (셀라)
- 6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 7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리로다
- 8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 9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말씀 암송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시 1:3)



##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름을 의지하는 자의 복

8,9절에 다윗은 자기를 푸른 감람나무에 비유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영영히 의지하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름을 의지한 결과 자신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푸른 감람나무는 번영과 형통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당시 형통하지도 번영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는 당시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영육간에 매우 곤핍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이 장차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 자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름을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현재 자신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장차 번영하고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자는 당장은 죽은 것과 같이 되어도 궁극적으로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의의 삶을 사는 것이 고통을 불러온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이름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고 의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죽은 자도 다시 살리고 마른 뼈에도 생명이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가치를 따르며 살고 있는지 말씀에 삶을 비춰봅시다.

# 21

주일

##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시53:1-6

새찬송가 251장

1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2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3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4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5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 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흠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6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말씀 암송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0:22)



##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이 기쁨을 누린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곧 불의한 자들에게 억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역시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단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들은 사단과 그의 하수인들에 의해 억압을 받으며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입에서는 탄식과 한숨소리가 그칠 날이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심으로 여러분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하실 날이 곧 이를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백성이 악인들에게 억압을 당하는 것을 두고 보지 못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고 속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내가 인내해야 할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22

월요일

##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시54:1-7

새찬송가 254장

- 1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 2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 3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 4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 5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 6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 7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말씀 암송**

여호와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시 118:6,7)



##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

다윗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기의 원수들이 자기를 어찌하지 못할 것이라는 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자기를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다윗의 돕는자시라면 누가 감히 그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그를 해하려는 자가 있다면 그 자신이 먼저 화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무슨 근거로 이런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경외하며, 그분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이 그를 돕는다는 것을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금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당신을 자기 앞에 모시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에 그를 도와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앞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의 돕는 자가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아무리 위기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며 형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 23

화요일

##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55:1-23

새찬송가 272장

- 1 하나님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 2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 3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 하나이다
- 4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 5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 6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 7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 8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 9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 10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 11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 12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대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대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 13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우로다
- 14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 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 15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 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 16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 17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 18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 19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셀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 20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 21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 22 네 집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 23 하나님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말씀 암송**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시 37:5)



## 문제의 유일한 해결자

22절에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란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권면의 내용은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이란 소유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여정 중에서 당면하게 되는 각양 근심 걱정과 문제 등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이러한 문제를 여호와께 맡기라고 자기 스스로를 향하여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대신 쳐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로 마음의 평강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가 해결해보려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 24

수요일

##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시56:1-13

새찬송가 273장

- 1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 2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 3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 4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 5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 6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 7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여 분노하사 못 백성을 낮추소서
- 8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 9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 10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 11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 12 하나님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 13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말씀 암송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로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이사야 12장 2절)



## 성도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3절에 보면 다윗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다시 다윗은 매우 위험하고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놉 땅이라는 곳으로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받은 골리앗의 칼을 손에 든 채로 블레셋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블레셋 입장에서 보면 그 모습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민족의 영웅 골리앗을 죽인 칼을 들고 온 다윗을 보며 기가 차고 말이 나오지 않는 어이 없음으로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앞에서도 다윗은 두려워 하거나 무서워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과 문제에 압도 되기 보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모습 때문에 무섭고 두려웠지만 다시 정신을 차리고 언제나 변함없이 바라 보아야 할 분을 바라 보기로 결단하며 문제에 압도 되기 보다 오히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택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러한 면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는 몰려오는 두려움과 무서움 앞에서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의 반석과 산성과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18:1) 이러한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고 승리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담대함과 승리의 기쁨을 소유하여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절대적인 시선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언제 절망하고 언제 낙심 합니까? 앞으로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 25

목요일

##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시57:1-11

새찬송가 278장

- 1 하나님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 2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 3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 4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 5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 6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 7 하나님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 8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 9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못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 10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 11 하나님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말씀 암송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저기 앞의 사자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 사랑과 그 긍휼로 그들을 구속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이사야 62장 9절)



## 성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긍휼'이라는 말은 '호의를 베풀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구원하여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비단 그가 어렵고 위험한 상황에 빠져 있기에 필요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의 은혜이며, 긍휼의 결과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큰 위기에 처해 있든지 아니면 형통하고 문제 없는 삶을 살고 있든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도움을 구하고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늘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쏟으며 살아갑시다.

# 26

금요일

##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시58:1-11

새찬송가 284장

- 1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 2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 주는도다
- 3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 4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 5 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 6 하나님이며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
- 7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 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임 같게 하시며
- 8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 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함 같게 하소서
- 9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 10 의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함이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 11 그 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말씀 암송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당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로마서 12장 3절)



## 성도는 교만한 마음을 멀리 해야 합니다

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 내시며"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 입에 있는 이'라는 것은 앞절에서 악인들을 '귀머거리 독사'와 같다고 표현했던 것을 볼 때 '독사의 이'를 말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악한 자들이 교만해져 악을 행하는 것도 그들액 무언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힘이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힘이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서슴없이 악을 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힘이 있으면 쉽게 교만해 지기 쉽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교만한 모든 것을 멀리 해야 하고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힘이 가져다 주는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쉽게 포기 하지 못하는 오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여 저희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라고 간구한 것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힘의 모든 원천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온유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라고 명하신 것에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면 순종의 힘과 온유함의 힘과 겸손함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믿음대로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서 힘을 자랑하며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합니다.



# 27

토요일

##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시59:1-17

새찬송가 287장

- 1 나의 하나님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 2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 3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 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 4 내가 허물이 없으나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피 주소서
- 5 주님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니 일어나 모든 나라들을 벌하소서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마소서 (셀라)
- 6 그들이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고
- 7 그들의 입으로는 악을 토하며 그들의 입술에는 칼이 있어 이르기를 누가 들으리요 하나이다
- 8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 9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 10 나의 하나님이 그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하시며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보응 받는 것을  
내가 보게 하시리이다
- 11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되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홀으시고 낮추소서
- 12 그들의 입술의 말은 곧 그들의 입의 죄라 그들이 말하는 저주와 거짓말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교만한 중에서 사로잡히게 하소서
- 13 진노하심으로 소멸하시되 없어지기까지 소멸하사 하나님이 야곱 중에서 다스리심을  
땅 끝까지 알게 하소서 (셀라)
- 14 그들에게 저물어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두루 다니게 하소서
- 15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 16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 17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 기도는 능력의 원천이 됩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나의 하나님여 내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처한 상황은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보낸 자들에 의해서 고립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태도는 경이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절망가운데서도 절망을 말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을 건져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며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다윗의 믿음과 기도에 대한 확신이 그에게 있지 않았다면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 하며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믿음의 증거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홍수와 같이 밀려오는 원수의 공격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분산 되는 것을 막아 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는 성도에게 있어서 무엇 보다 확실한 믿음의 원천이며 승리의 원천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일하게 만드는 능력의 원천임을 의심치 말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 중에 다윗과 같이 믿음의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 28

주일

##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시60:1-12

새찬송가 292장

- 1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홀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 2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 3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 4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 5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 6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속곳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 7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 8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 9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 10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 11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 12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말씀 암송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와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사 12:2)



## 주님과 함께라면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용감히 행하는데 대적을 밟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담대히 전진하기만 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불리함 속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결코, 무능하지도 무기력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걷는 걸음마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마다 강하신 주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위해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입니다.



지금 나를 두렵게하는 사람, 또는 상황이 있습니까?

주님의 승리를 묵상하며 담대함을 구해봅시다.

# 29

월요일

##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시61:1-8

새찬송가 303장

- 1 하나님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 2 내 마음이 약해 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 3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 4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 5 주 하나님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 6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 7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 8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말씀 암송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히 13:6)



##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언제나 안전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고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을 구해 주시고 환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한 그의 솔직한 신앙입니다. 이러한 고백에는 지금 자신은 비록 인생의 벼랑 끝과 같은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하여 있지만 하나님의 보호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라는 확신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행은 오랫동안 끝없는 원수들의 추적들을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의 '피난처' 되심과 '견고한 망대' 되심을 강렬하게 체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시고 계실 만큼 우리에게 절대적인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또한, 아직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대적들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땅끝에 놓인 것과 같은 위기에 있다 하더라도 피난처와 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확신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외에 누구와 또는 무엇과 함께 할 때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마음의 눈을 돌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심을 고백해 봅시다.

# 30

화요일

##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시62:1-12

새찬송가 309장

-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 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 3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 4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 5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 6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 7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 8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 9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 10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 11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 12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말씀 암송

사람이 여호와와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애 3:26)



## 위기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다윗은 당시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역자들이 총공세를 퍼붓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답답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두려움에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겠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리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선언에 고요함과 평안함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은 모두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은 위기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진정한 성도는 위기의 순간에 요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봅니다. 자기 힘으로 무엇을 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위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은혜로운 찬양을 들으며, 말씀과 기도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다.



# 31

수요일

##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하나이다

시63:1-11

새찬송가 311장

- 1 하나님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 4 이렇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 5 꿀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 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 7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 8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 9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 10 칼의 세력에 넘겨져 송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 11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말씀 암송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 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시 143:6)



##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만나주심으로 광야에서 영육간에 궁핍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소이든, 광야이든 그 어느 곳에서도나 당신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는 반드시 권능과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시며,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누구나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찾고 구하십시오.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찾아와 주신 경험이 있습니까?  
그 때의 감사와 감격을 기억해보며 주변 이웃에게 나누어 봅시다.



원주중부교회 새벽 QT

## 매일 만나

2023. 5

**발행인** | 김미열

**도운이** | 한성훈 최청환  
| 안광모 박예일  
김요한 송주원  
손아론 신동재  
김충만

**발행처** | 원주중부교회

T : 033-744-2760 ~1,2

F : 033-744-2763

<http://wjjungbu.org>